



# 2

## 가치 있는 삶

◆ 인물이 한 일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써 봅시다.



‘겨울 햇살’이 한 일을 생각하며 시를 읽어 봅시다.

### 겨울 햇살

어린  
겨울 햇살은  
걱정도 많습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잘 있어요?  
별일 없지요?

시냇물 속의 피라미에게도  
갈색 무늬 다슬기에게도  
인사합니다.  
들길의 꽃씨와  
여린 풀뿌리도 춥지 않을까  
시린 손 호호 불며  
짧은 해 종일  
조금씩 데워 놓고 다닙니다.

어린  
겨울 햇살은  
할 일도 참 많습시다.





## 이태석 신부 이야기

모든 사람은 청년 이태석이 의대를 졸업하고 곧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이태석은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여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인 수단 남쪽 마을 톤즈로 갔습니다.

톤즈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공포와 상처, 가난이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또 수단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은 물론 가족, 친척, 부족에게까지 당한 대로 보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의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병원을 세워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한 사람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잠을 줄였고, 멀어서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서 먼 곳까지 왕진을 갔습니다. 특히 의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센인들에게도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랑받도록 힘쓰라.'라고 말한 요한 보스코 신부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톤즈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톤즈를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할수록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의사뿐만 아니라 건축가, 교사, 지휘자 등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톤즈의 건물 지붕에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해 톤즈

의 밤을 환하게 밝혔고, 톤즈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며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전쟁과 가난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음악으로 치유하고자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창단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 1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수단의 남쪽 마을 톤즈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2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 이태석 신부가 늘 마음에 새긴 요한 보스코 신부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 2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서 한 일을 순서대로 네 컷 만화로 그려 봅시다.

1

2

3

4





기자: 이태석 신부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 소년은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실제 1년 전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씨와 함께 한국에 온 존 씨도 얼마 전 발표된 의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태석 신부와 후원 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온 두 명의 제자가 1년 사이 잇따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타반 아콧: 지금 제 모습을 신부님께서 보신다면 등을 두드리시며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기자: 한국어도 서툰 두 소년이 한국에서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태석 신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존 마옌 루벤(고 이태석 신부 제자):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늘 감동을 받았어요. 제게는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이 늘 감동이었고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닮고 싶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직업이구나, 의사가 되면 신부님처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자랐어요.

토마스 타반 아콧: 한국에서 공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수단 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늘 다짐하며 견뎠어요.

기자: 고 이태석 신부가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꼭 10년입니다. 작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존과 토마스 씨는 한국에서 수련 생활을 마치는 대로 수단으로 돌아가 이태석 신부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 인물이 한 일에 대해 나의 생각을 표현했나요?

